

# 지역 공연가도 '정년이' 처럼

여성 국극 다룬 TV드라마 인기  
광주시립창극단·ACC 공연 등  
남녀 성역없는 '젠더 프리' 바람  
여성소리꾼이 이몽룡·방자 역할  
'살로메' 공주 역, 남성이 연기도



광주시립창극단이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쳤던 '천변만화'에서 연기하는 방자 역 이미소(왼쪽부터), 몽룡 역 한혜숙.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1950년대 여성 국극을 다룬 드라마 '정년이'가 최고 시청률 13.4%(6화)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목표 출신 소녀 윤정년(김태리 분)의 성장담을 그린 이 작품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주역들의 판소리 실력 등으로 입소문을 탔다.

그 가운데 여성 배우가 남역까지 소화하는 '젠더 크로스(젠더 프리·Gender free)' 형식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 정년이는 극중극 '춘향전'에서 방자 역을 열연하며 성역할 경계를 허물었다.

드라마 인기와 맞물려 지역에서도 상연을 앞두거나 무대화된 '젠더 프리'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남녀 역할을 구분 짓던 관성을 허물고 배우들 앞에 '성역(聖域) 없는 성역(性域)'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광주시립창극단이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 보인 '천변만화'는 대표적인 예다. 판소리 춘향전 초입 부분을 단막극으로 엮은 '광한루' 대목에서 주역 한혜숙이 '이몽룡' 역을, 이미소가 '방자' 역을 소화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여성 소리꾼.

이미소 씨는 "남역인 방자로 '변신'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평소 목소리 자체가 남성적이지 않아서, 모든 대사마다 목소리를 (일부러) 굵다 보니 드라마 '정년이'처럼 목이 금방 쉬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평소 일상에서 할 수 없던 모션이나 대사를 연기할 수 있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며 "관객들 눈에 '여자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했지만, 오히려 귀엽게 관람해 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혜숙 씨 또한 "남성 역할임을 인지하고 있어도 문득 여성의 목소리로 돌아올 때가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그만큼 해냈을 때 성 고정관념을 넘어섰다는 기쁨도 크게 뒤따랐다"고 했다.

이들 여성 도령과 방자가 주고받은 소리, 몸짓은 전통적 남녀 이중 장(唱)에 새로운 파장을 남

긴다. 광주시립창극단이 1989년 국극단으로 창당한 뒤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년이'와 유사한 사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ACC 예술극장에서 선보였던 남성장극 '살로메'도 마찬가지다.

살로메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공주로, 세례자 요한을 사랑한 살로메와 이를 둘러싼 헤로데 왕가의 그릇된 욕망을 표현했다. 뮤지컬 '광주'로 익숙한 고선웅 작가가 각색을 맡아 일찍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준수 등 11명 남성 배우는 성 경계를 허물고 세기를 풍미한 오부(妖婦) 등을 연기했다. 김시화 연출은 "실험적 도전인 '남성 장극'은 성역할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시도에 볼 수 있는 공연 형식이라 생각했다"며 "이와 같은 '젠더 프리'는 전통예술 콘텐츠를 확장하고 대중화에 다가서는 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연말 공연을 앞둔 광주시립발레단 작 '호두까기 인형'도 흥미로운 예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마더 진저' 역에 남성 배우를 출

연시키려는 복안이다.

영미권 재안무 버전에서 종종 볼 수 있던 이 배역에 대해 박 감독은 "남성 솔리스트의 파워를 바탕으로 종래 연극의 '젠더 롤(Gender role·성역할)' 구분을 넘어서는 독창적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지역 소극장 병커 111에서 만난 여성 배우 전형진도 자신만의 페르소나로 성(性)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 그는 지난 30일 임시무 극작가가 기획한 참여극 '빙의된 사람들' 중 태수(남성) 역을 연기했다.

전 씨는 "처음엔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에서 남성 연소팔 역을 맡았는데, 당시 '남역과 잘 어울린다'는 피드백을 받고 이번 공연에서도 '아저씨' 역할에 자유했다"면서 "행동을 거칠고 크게 한다가 더 소탈하게 웃는 등 남성적인 면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젠더 프리'가 단순히 성별과 의복을 바꾼 '코스프레', 과장적인 '드레그 캣'과 달리, 성역할 구분을 무너뜨리면서 고유한 예술 가치마저 담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박진연의 문화카페

한국서양화단의 개척자인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은 생전 집 3채를 남겼다. 그의 대표작에 등장하는 남향집(개성)과 태어난 생가(화순), 그리고 말년을 보냈던 고택(광주)이다. 이들 작가의 집은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송도(개성)고보 재직시 거주했던 남향집은 훗날 작품 '남향집'으로 구현됐고, 화순 동복의 생가와 광주 지산동의 초가집은 그의 삶과 예술이 응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집들은 온기를 잃은(?) 듯 보인다. 국가등록문화재 제 536호로 지정된 '남향집'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은 고향을 떠나 40년 간 '타향살이' 중이

인 '자화상'에서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인 '설경', '처의상', 리움미술관의 컬렉션 등 그동안 광주에서 보기 힘들었던 명작들이 대거 선보인다. 맑은 공기와 투명한 빛이 쏟아지는 화폭이 인상적인 '남향집'은 벌써부터 관람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무엇보다 '남향집'의 귀향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1985년 오 화백의 유족들이 '남향집'을 비롯한 37점을 전남도에 기증하려 했지만 당시 변변한 미술관이 없어 부득이 서울로 떠나 보냈기 때문이다. 기증 당시 현대미술관은 유족들에게 오지호 상설전시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채 상당수의 작품이 지하 수장고에서 빛을 보

## '남향집'의 귀향이 반가운 이유

고, '오지호 기념관'으로 변신한 화순 생기는 찾는 발길이 거의 없어 설명하기 짝이 없다.

그중에서도 광주 지산동 주택가에 자리한 초가(광주시 기념물 제6호)는 문화광주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오 화백이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54년부터 1982년 타계할 때까지 30여 년간 머물렀던 뜻깊은 곳이지만 1년에 한번씩 지붕을 교체하는 이영작업에만 지원을 받을 뿐 사실상 방치돼 있다. '예술가의 집'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대책이 미흡해 관광객들은 커녕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 가을, 거장의 대표작인 '남향집'이 40년 만에 고향을 찾는다. 전남도립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오지호와 인상주의를 주제로 기획한 '오지호와 인상주의: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에서다.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동경예술대 시절의 졸업 작품

지 못하고 있다. 미술관 시설이 부족해 그의 작품들을 별도로 전시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오래전 '남향집' 앞에 선 나는 당시 가슴 한켠이 먹먹했다. 명작을 봤을 때의 벅찬 감동과는 결이 다른 감정이었다. '남향집'이 현대미술관의 품에 안길 수 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떠올라서였다.

예술가들의 집을 잃는다는 건 그들의 삶과 창작경험에 접속할 '문'을 놓치는 것일터. 예술가들이 오래 머문 공간은 자신들의 삶 뿐만 아니라 작품에 영감을 준 유즈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세계에 깊게 들어가려면 그들의 집과 아틀리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침, 내년은 거장이 탄생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다. 4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남향집'이 반가운 건 그 때문이다. 언제쯤이면 문화광주에 근사한 '오지호 공간'이 들어서게 될까.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 역사 컬렉터, 수집을 말하다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7일 박건호 컬렉터 초청 강연

역사 컬렉터는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이를 말한다. 박건호 역사 컬렉터의 컬렉터로서의 시작은 대학 1학년 때 답사를 가서 준운 빛살무늬 토기 파편에서 비롯됐다. 이후 30여 년 역사 자료를 수집하며 자료에 담긴 역사의 이면을 읽어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건호 역사 컬렉터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석연경)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박건호 컬렉터 초청 강연을 연다.

'역사 컬렉터, 수집을 말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강연에서 박 컬렉터는 자료에 담긴 역사적 코드들을 하나둘씩 추적하는 내용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다. 진행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석연경 소장이 맡았다.

박 컬렉터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에서 기록학을 공부했다. 명덕외국어고교를 거쳐 강남 대성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유투브스튜디오, 아침마당 등에 출연했으며 강연과 저술을 매개로 역사 관련 강의를 전하고 있다.

석연경 소장은 "이번 강연은 30여 년 경력의 컬렉터 경험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역사 자료의 중요성, 이를 읽어내는 코드의 방법,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진도-대구 '달빛 국악 선율'

국립남도국악원 '달구벌의 樂·歌·舞' 16일 진악당

'진도'와 '대구', 두 지역의 국악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교류 음악회'가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은 대구 시립국악단 교류공연 '달구벌의 樂·歌·舞'을 오는 16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펼친다.

공연은 가야금 2중주 '침향무'로 막을 올린다. 인도의 향기 중 하나인 침향(沈香)을 모티브 삼아 독특한 향취와 춤이 어우러지는 무용이다.

윤은화가 작곡한 양금독주 '검은 사막'도 올려 퍼진다. 타현악기의 특성을 지닌 양금 선율이 도드라지며 사막 위를 걷는 듯한 장중한 분위기가 악곡 전반에 흐른다. (연주에 이현정)

민속무용 '태평무'는 장은성의 춤사위에 실린다. 이어지는 전소이가 들려주는 태평소협주곡 호적풍류는 2006년 11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된 곡이다.

서도민요 '싸름', '금다래꿈'을 비롯해 서도 민요 '남방가연곡'은 소리꾼 김단희의 목소리에 실린다. 백규진이 작곡한 국악관현악 '화랑'도 있다.

지휘·해설은 대구시립국악단 양성필 악장이, 가야금 연주는 국악단 김은주 수석과 류경혜 단원이 맡는다.

장악과 박장원 교류 공연 담당은 "창단 40주년을 맞은 대구시립국악단은 전통음악을 현대화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며 "조화를 이루는 두 국악단의 선율이 전통예술의 고아한 멋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관람. 국악원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